



김유기 | 서울여대

1. 산헤립 연대기

주전 701년에 이루어진 산헤립(주전 704-681년)의 팔레스타인 원정에 관해서는 고대 서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다른 어느 사건 못지않게 역사적 자료가 풍부하다. 그 중 문서 자료로 구약 성서와 산헤립 연대기가 있다.²⁾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원정에 관해 지금까지 방대한 역사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³⁾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문서 자료가 동일한 수준의 객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대체로 구약 성서는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반영된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산헤립이 남긴 글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 발

1)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09 - 327 - A00087).

2) 구약 성서 중 열왕기하 18장 13절-19장 37절, 이사야 36-37장, 역대하 32장 1-23절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에 대한 비교적 최근 연구로는 Lester L. Grabbe(ed.), *'Like a Bird in a Cage':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701 BCE* (JSOTSup 363;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에 있는 논문들과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견되었으므로 좀 더 믿을 만한 자료로 인정된다. 이 글에서는 일종의 역사 기록인 산헤립의 연대기를 문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진술 이면에 숨어 있는 저자의 의도를 밝히고, 산헤립의 유다 공격과 관련된 연대기의 진술을 비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의 배경과 연대기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핀 후 연대기에 나오는 몇몇 표현을 바탕으로 이 자료의 문학적 성격을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유다 공격에 나오는 일부 표현의 역사성을 자료의 문학적 성격에 비추어 고려함으로써 역사 재구성에서 이 자료의 적절한 자리를 확인하려 한다.

2.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과 역사

1) 역사적 배경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신하로 자처했던 선왕(先王) 아하스와 달리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되었다. 히스기야의 반아시리아 정책 이면에는 이집트의 충동이 있었던 것 같다. 이집트는 국경과 접한 팔레스타인에서 아시리아의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남부 팔레스타인을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의 완충지대로 남겨두려 했을 것이다.⁴⁾ 이런 상황에서 아시리아가 자신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유다를 향해 머지않아 진군해 오리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는 순수한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종교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냈고 아울러 지방의 성전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위를 강화했다(왕하 18:1-8). 또한 수도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등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였다(대하 32:5).⁵⁾ 특히 식수원 확보를 위해 지하에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기혼 샘의 물을 성벽 안의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었다(왕하 20:20; 대하 32:3-4).

아시리아는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주전 745-727년)와 사르곤 2세(주전 722-705년)의 원정 이후 방대한 영토를 갖게 되었고, 그의 후계자들은 이 영토를 유지

4) Gösta W.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1993), 696.

5) 전쟁에 대비한 히스기야의 군대 개혁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동규,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군사 개혁", 『구약논단』 35집 (2010년 3월), 227-230을 보라.

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특히 사르곤은 바빌론을 점령함으로써 아시리아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곁보기와 달리 그의 제국은 그다지 튼튼하지 않았으며 곳곳에서 반란의 조짐이 일고 있었다. 사르곤이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위에 오르자 잠재해 있던 불안이 표면화되었다. 산헤립의 원정들은 주로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는 선왕들이 획득한 영토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경 지방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었다.⁶⁾ 즉, 산헤립의 주요 관심은 바빌로니아와 지중해 연안 지방이었다.⁷⁾ 바빌로니아는 부왕 사르곤이 점령했던 곳이며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은 아시리아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집트의 영향을 받는 국경 지방이었던 것이다. 연대기에 따르면, 산헤립의 원정들 중 대부분은 바빌로니아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산헤립이 바빌로니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산헤립 재위시기에 팔레스타인을 향한 원정은 단 한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은 국경 지방을 튼튼히 함으로써 아시리아 제국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시리아 군대는 팔레스타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집트의 저항에 부딪쳐야 했다. 게다가 유다는 바빌로니아의 반란 주도자인 므로닥 발라단(마르두크-아플라-이디나)과 모종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다. 구약 성서(왕하 20:12-19; 대하 32:31; 사 39:1-8)에 따르면 므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아에게 사절단을 보냈고, 히스기아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반아시리아 동맹에 힘을 보태 줌으로써 예언자 이사야의 질책을 받는다.⁸⁾

결국 산헤립은 주전 701년에 감행한 세 번째 원정에서 팔레스타인을 향해 진군하여 유다를 공격했다.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는 유다의 여러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6) Amélie Kuhrt, *The Ancient Near East c. 3000-300 BC* (2 vols.; Routledge History of the Ancient World; London/New York: Routledge, 1996), 499.

7) Georges Roux, *La Mésopotamie* (Points Histoire; Paris: Édition du Seuil, 1995), 364.

8) 성서 기록의 순서를 따른다면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 이후에 므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므로닥 발라단은 팔레스타인 원정 이전에 산헤립에게 패하여 달아났기 때문에 사절단 파견은 원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순서가 어찌 되었든 이 성서 기록 내용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유다는 분명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대규모 동맹에 참여했을 것이다.

2) 역사 기록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하 18장 13절-19장 37절 안에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일즈(Brevard S. Childs)는 18장 13-16절을 A 기사로, 그 나머지 부분을 B 기사로 구분하고, B 기사 중에서 18장 17절-19장 9a절, 36-37절을 B1로, 19장 9b-35절을 B2로 구분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구분을 지지하고 있다.⁹⁾ 이 중 앞부분에 나오는 A 기사(왕하 18:13-16)는 비교적 객관적인 역사 서술로 여겨진다.¹⁰⁾ 여기에 따르면 히스기야 재위 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을 점령한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반역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산헤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산헤립은 은 3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고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도금을 다 긁어모아 산헤립에게 보낸다. 한편, B 기사(왕하 18:17-19:37)는 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설득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자 이사야의 지지를 받으며 끝까지 저항한다. 어느 날 밤 야훼의 군대가 산헤립의 군대를 쳐서 185,000명을 죽이자 아시리아 군대는 퇴각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A 기사와 달리 B 기사는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여긴다.¹¹⁾ B 기사는 히스기야가 야훼의 도움을 받아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야훼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후대 저자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반면 산헤립 연대기는 사건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사자가 기록한

9) Brevard S. Childs, *Isaiah and the Assyrian Crisis* (SBT 2/3; Naperville, IL: Allenson, 1967), 73-74; Francolino J. Gonçalves, *L'expédition de Sennachérib en Palestine dans la littérature hébraïque ancienne* (PIOL 34; Paris: Gabalda, 1986), 354; Iain W. Provan,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ZAW 172;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8), 120-130.

10) 매킨터(P. Kyle McCarter)는 이 이야기가 "사건의 간결한 요약(a straightforward summary of the events)"으로 "사무적인 어조(businesslike tone)"가 느껴지기까지 한다고 언급한다. P. Kyle McCarter, Jr., "The Divided Monarchy: The Kingdoms of Judah and Israel," Hershel Shanks(ed.), *Ancient Israel: From Abraham to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rev. ed.; Washington, DC: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1999), 179.

11) 이사야 36-37장과 역대하 32장 1-23절에는 B 기사에 해당하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으며 A 기사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A 기사를 포함하지 않은 역대기의 신학에 관해서는, 임헌준,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 상(像)", 「구약논단」 31집 (2009년 3월), 114-136을 보라.

자료다. 아시리아 왕들의 연대기는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왕이 직접 기록자가 되는 셈이다. 연대기에는 전쟁의 승리나 건축 사업 등 왕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아시리아 연대기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례로, 라아토(Antti Laato)는 산헤립이 남긴 기록 가운데 자신의 패배를 감추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선전용 표현들이 있음을 밝히며 산헤립의 기록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만한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¹²⁾

연대기 사본 중 팔레스타인 원정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테일러 프리즘(Taylor Prism)과 시카고 프리즘(Chicago Prism)이다.¹³⁾ 이들은 원정 이듬해에 기록된 라삼 실린더(Rassam Cylinder)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전 691년과 689년에 각각 기록되었다. 두 프리즘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시카고 프리즘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3. 팔레스타인 원정 기록

1) 본문 번역

시카고 프리즘에 기록된 산헤립의 연대기 중 팔레스타인 원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말로 옮긴다.¹⁴⁾ 전체 여섯 단으로 이루어진 시카고 프리즘에서 팔레스타인 원정은 둘째 단 37행부터 셋째 단 49행까지 전체 96행을 차지한다. 원문에는 없지만 단락 구분을 시도하고 각 단락에 제목을 붙여 보았다.¹⁵⁾

12) Antti Laato, "Assyrian Propaganda and the Falsification of History in the Royal Inscriptions of Sennacherib," *Vetus Testamentum* 45 (1995), 189-226.

13) 프리즘은 진흙을 빚어 육각기둥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둥 모양의 여섯 측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14) 아카드어 전사(傳寫)로는 Rykle Borger, *Babylonisch-assyrische Lesestücke* (2 vols.; 3d ed.; AnOr 54; Rome: Pontificum Institutum Biblicum, 2006), 2:329-330을 참고했다. 번역으로는, ARAB 2:118-121; "The Siege of Jerusalem," translated by A. Leo Oppenheim (*ANET*, 287-288); "Sennacherib's Siege of Jerusalem," translated by Mordechai Cogan (*COS* 2.119B: 302-303); Mordechai Cogan, *The Raging Torrent: Historical Inscriptions from Assyria and Babylonia Relating to Ancient Israel* (Jerusalem: Carta, 2008), 112-115; Walter Mayer, "Sennacherib's Campaign of 701 BCE: The Assyrian View," Lester L. Grabbe(ed.), *유헤브*, 188-190; R. Borger, W. Hinz, and W. H. Ph. Römer, *Rechts- und Wirtschaftsurkunden: Historisch-chronologische Texte* (TUAT 1; Gutersloh: Gerd Mohn, 1984), 388-390; Manfred Weippert, *Historisches Textbuch zum Alten Testament* (GAT 1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329-333을 참고했다.

II 단

A. 서문

⁽³⁷⁾나는 세 번째 군사 원정에서 하티(=시리아)를 향해 갔다.

B. 물리

⁽³⁸⁾시돈의 왕 물리는 나의 ⁽³⁹⁾주권의 ⁽³⁸⁾광채에 대한 두려움에 ⁽³⁹⁾압도되어 ⁽⁴⁰⁾바다 한가운데 ⁽³⁹⁾먼 곳으로 ⁽⁴⁰⁾달이나 영원히 사라졌다. ⁽⁴¹⁾큰 시돈, 작은 시돈, ⁽⁴²⁾베트-지티, 차립투, 마할리바, ⁽⁴³⁾우슈, 악지바, 아코 등 ⁽⁴⁴⁾그의 튼튼한 도시들, 요새들, 목초지, ⁽⁴⁵⁾물 길는 곳, 지원 도시들은 ⁽⁴⁶⁾나의 주 ⁽⁴⁵⁾아슈르 신의 무기에 대한 두려움에 ⁽⁴⁶⁾압도되어 나의 발아래 복종하였다. ⁽⁴⁸⁾나는 ⁽⁴⁷⁾투발루를 ⁽⁴⁸⁾그들 위에 ⁽⁴⁷⁾왕 위에 ⁽⁴⁸⁾앉히고, ⁽⁴⁹⁾그에게 ⁽⁴⁸⁾나의 위엄에 대한 조공과 세금을 ⁽⁴⁹⁾매년 쉬지 않고 부과했다.

C. 아무루의 왕들

⁽⁵⁰⁾삼시무루나의 민힘무, ⁽⁵¹⁾시돈의 투발루, ⁽⁵²⁾아르바드의 아브디일티, ⁽⁵³⁾비블로스의 우루밀키, ⁽⁵⁴⁾아슈도드의 미턴티, ⁽⁵⁵⁾베트-암몬의 푸두일루, ⁽⁵⁶⁾모압의 캄무수나드비, ⁽⁵⁷⁾에돔의 아야람무 등 ⁽⁵⁸⁾아무루 왕들은 모두들 엄청난 조공과 ⁽⁵⁹⁾굉장한 선물을 네 배나 내 앞에 ⁽⁶⁰⁾가져와 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D. 치드카야

그러나 ⁽⁶²⁾나의 명에 ⁽⁶¹⁾복종하지 않는 아슈켈론의 왕 ⁽⁶⁰⁾치드카야의 경우에는, ⁽⁶²⁾그의 가족 신상들과 그와 그의 아내와 ⁽⁶³⁾그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집안의 남자들을 ⁽⁶⁴⁾이주시키고 그를 아시리아로 데려갔다. ⁽⁶⁵⁾예전에 그들의 왕이었던 루키브투의 아들 샤룰루다리를 ⁽⁶⁶⁾아슈켈론의 백성 위에 세우고 ⁽⁶⁷⁾나의 위엄에 대한 조공과 선물을 바치도록 그에게 강제했고 ⁽⁶⁸⁾그는 나의 명에 끌고 있다. 나는 군사 원정길에 ⁽⁷¹⁾치드카야의 ⁽⁷⁰⁾도시들 중 ⁽⁷¹⁾나의 발 앞에 바로 ⁽⁷²⁾무릎 꿇지 않은 ⁽⁶⁸⁾베

15) 프리즘에 새겨진 원문에서는 팔레스타인 원정 전체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단락들과의 구분은 실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트-다가나, 아푸, ⁽⁷⁰⁾바나이바르카, 아주루를 ⁽⁷²⁾포위하고 점령한 후 약탈했다.

E. 에크론 사람들

⁽⁷⁵⁾아시리아와 ⁽⁷⁴⁾동맹 관계에 있던 자기네 왕 파디를 ⁽⁷⁵⁾쇠로 만든 족쇄에 채워 ⁽⁷⁷⁾원수처럼 ⁽⁷⁶⁾유다인 히스기야에게 ⁽⁷⁷⁾넘겨준 ⁽⁷³⁾에크론의 고관들과 귀족들 및 백성은 ⁽⁷⁷⁾자기들이 행한 끔찍한 일 때문에 ⁽⁷⁸⁾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 ⁽⁸¹⁾그들은 ⁽⁷⁸⁾이집트의 왕들, ⁽⁸⁰⁾누비아 왕의 ⁽⁷⁹⁾부대, 사수(射手)들, 전차들, 기병들, ⁽⁸⁰⁾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을 ⁽⁸¹⁾요청했고, 이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 ⁽⁸²⁾엘테케의 평원에서 ⁽⁸³⁾나의 앞에 전선이 형성되었고

III 단

⁽¹⁾그들은 무기를 갈고 있었다. ⁽²⁾나는 나의 주 ⁽¹⁾아슈르 신을 신뢰하며 ⁽²⁾그들과 싸워 ⁽³⁾그들에게 패배를 ⁽²⁾안겨주었다. ⁽⁵⁾전투가 한창일 때 ⁽⁴⁾이집트 ⁽³⁾왕의 전차 부대장과 왕자들을 비롯해 ⁽⁴⁾누비아 왕의 전차 부대장까지 ⁽⁶⁾나의 두 손으로 ⁽⁵⁾생포했다. ⁽⁶⁾엘테케와 팀나를 ⁽⁷⁾포위하고 점령한 후 약탈했다. 에크론으로 ⁽⁸⁾가서 범죄를 ⁽⁹⁾저지른 ⁽⁸⁾고관들과 귀족들을 ⁽⁹⁾죽이고 ⁽¹⁰⁾도시를 둘러 있는 ⁽⁹⁾망대에 ⁽¹⁰⁾그들의 시체를 매달았다. ⁽¹¹⁾죄와 과오를 저지른 ⁽¹⁰⁾도시 주민들은 ⁽¹¹⁾전리품으로 삼았다. ⁽¹²⁾그들 중 범죄나 ⁽¹³⁾과오를 ⁽¹²⁾저지르지 않아 ⁽¹³⁾무죄인 ⁽¹²⁾나머지 사람들은 ⁽¹⁴⁾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들의 왕 파디를 ⁽¹⁵⁾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끌어내 ⁽¹⁶⁾그들 위에 주권의 자리에 앉히고 ⁽¹⁷⁾나의 지배에 대한 조공을 그에게 부과했다.

F. 히스기야

⁽¹⁹⁾나의 멍에에 복종하지 않은 ⁽¹⁸⁾유다인 히스기야에 관해 말하자면, ⁽¹⁹⁾그의 강력한 46개 도시와 ⁽²⁰⁾요새 및 그 주변의 ⁽²¹⁾셀 수 없이 많은 ⁽²⁰⁾작은 도시를 상대로 ⁽²²⁾경사로를 쌓게 하고 ⁽²²⁾과성되(破城槌)를 가까이 가져가고 보병을 투입하고 ⁽²³⁾부수는 도구와 자르는 도구와 포위 공격 기구들을 사용하여 포위하고 점령했다. ⁽²⁴⁾200,150명의 크고 작은 남녀 백성, ⁽²⁵⁾말들, 노새들, 나귀들, 낙타들, ⁽²⁶⁾소 떼와 양 떼를 셀 수 없이 많이 그들 가운데서 ⁽²⁷⁾끌어내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를 새장의 새처럼 ⁽²⁸⁾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 가운데 ⁽²⁹⁾가두었다. 그에 대항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³⁰⁾ 그가 성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³¹⁾ 내가 약탈한 ⁽³⁰⁾ 도시들을 ⁽³¹⁾ 그의 나라에서 분리시켜 ⁽³²⁾ 아슈도드의 왕 미틴티와 ⁽³³⁾ 에크론의 왕 파디와 ⁽³⁴⁾ 가자의 왕 ⁽³³⁾ 칠리-벨에게 ⁽³⁴⁾ 줌으로써 그의 나라를 축소시켰다. ⁽³⁵⁾ 그들이 예전에 바치던 연례적 조공에다 ⁽³⁶⁾ 나의 지배에 대한 조공과 선물을 추가하여 ⁽³⁷⁾ 그에게 부과하였다. 그 사람 히스기야는 ⁽³⁸⁾ 나의 주권의 광채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⁴⁰⁾ 그의 왕도인 예루살렘을 ⁽³⁹⁾ 견고히 하기 위해 ⁽⁴⁰⁾ 그가 데리고 들어와 ⁽⁴¹⁾ 도움을 받은 ⁽³⁹⁾ 용병과 그의 정예부대를 비롯해, ⁽⁴¹⁾ 금 30달란트와 ⁽⁴²⁾ 은 800달란트, 작은 최상급 안티몬 조각들, ⁽⁴³⁾ 큰 안구그(AN.GUG) 돌조각들, 상아 침대, ⁽⁴⁴⁾ 팔걸이가 있는 상아 의자, 코끼리 가죽, 상아, ⁽⁴⁵⁾ 흑단 나무, 회양목재, 온갖 귀한 보물, ⁽⁴⁶⁾ 그리고 자기 딸들과 자기 왕궁의 여자들 및 남자 악사들과 ⁽⁴⁷⁾ 여자 악사들을 나의 주권의 도시 니네베 안으로 ⁽⁴⁸⁾ 내 뒤에 보내 왔다. 또한 조공을 전달하고 ⁽⁴⁹⁾ 종노릇하기 위해 자기 사신을 보내 왔다.

(시카고 프리즘 II 37-III 49)

2) 주요 내용

연대기에 따르면 산헤립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인 시돈을 점령한 후, 반란을 일으켰던 물리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러자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비롯해 요단 강 동편의 모압과 암몬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에게 조공을 바친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슈켈론이 저항하자 산헤립은 손쉽게 아슈켈론을 점령한 후, 이 도시의 지도자를 교체해 버린다. 에크론의 경우에는,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이 주민들과 더불어 친아시리아 성향의 파디 왕을 반아시리아 성향을 지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넘겨준 후 아시리아에 저항했다. 자기네 힘으로 아시리아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 판단한 에크론의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 및 반아시리아계 주민들은 이집트와 누비아에 파병을 요청했다. 이리하여 산헤립은 엘테케에서 강력한 이집트-누비아 군대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연대기에 따르면 이 공격에서 아시리아군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두고 엘테케와 팀나를 정복했다. 에크론으로 진군한 아시리아 군대는 에크론의 반아시리아계 지도자들과 주민들을 처형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전리품으로 빼앗았다. 또한 예루살렘에 잡혀 있던 파디를 데려와 에크론의 왕위에 복귀시켰다. ⁽¹⁶⁾ 마지막으로, 산헤립은 유다를 공격하여 유다의 46개 주요 도시를 점령한다.

이 대목은 “히스기야 왕 제십 사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왕하 18:13; cf. 대하 32:1; 사 36:1)라고 언급하고 있는 성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산헤립은 자신이 점령한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엄청난 규모의 약탈을 자행한다. 그 후 그는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GIM MUŠEN *qu-up-pi*)”(III 27)처럼 예루살렘 안에 가두고, 점령한 도시들을 아슈도드와 에클론 및 가자의 왕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바친 조공과 보낸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며 유다 공격에 관한 기록이 마무리된다.

4. 연대기 저자의 의도

1) 아시리아 왕과 아슈르 신

연대기는 아시리아 왕의 승리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산헤립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손쉽게 페니키아 도시들을 점령한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였던 시돈의 왕 물리는 산헤립이 출현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아나 버리고 다른 왕들 역시 전투 한 번 해 보지 않고 산헤립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실제로 아시리아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산헤립의 출현 앞에 하나같이 힘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아나거나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려지는 왕들의 모습은 사실의 묘사라 보기 어렵다.

연대기에는 아시리아 왕의 신화적인 견해가 드러난다. 산헤립은 “아슈르 신의 무기(⁶⁵⁸TUKUL ⁴as-šur)”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시돈의 여러 도시들이 자기에게 항복했다고 언급하고 있다(II 45).¹⁷⁾ “아슈르 신의 무기”라는 표현은 앞서 나오는 “나의 주권의 광채(*pul-ḫi me-lam-me be-lu-ti-ia*)”(II 38-39)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산헤립은 자신의 힘을 아슈르 신의 힘과 동일시한다. 엘테케에서 이집트 군대와 싸울 때에도 산헤립은 아슈르 신을 의지하고 싸워서 결국 이집

16) 비록 연대기에 기록된 순서와는 다르지만, 히스기야가 항복한 이후 파디를 풀어 준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17) William R. Gallagher, *Sennacherib's Campaign to Judah: New Studies* (SHCANE 18; Leiden: Brill, 1999), 95, n. 32; CAD(K, kakku, 55-56)에 따르면 아슈르의 무기는 “신의 상징물을 갖고 있는 군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전쟁을 위한 도구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트의 강력한 군대를 무찌른다(III 1). 산헤립은 이와 같이 아슈르 신을 두 차례 언급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원정을 아슈르의 전쟁으로 묘사한다.

2) 에크론

연대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지막에 언급되는 에크론과 유다에 대한 진술이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에 강력히 저항했으며 그가 공격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시돈이나 아슈켈론 역시 산헤립의 권위에 저항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 산헤립에게 쉽게 정복당하고 그 왕이 폐위되며 아시리아에 우호적인 세력에게 권력이 이양된다. 에크론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이 도시국가의 요청을 받고 파병된 이집트-누비아 군대와 아시리아 군대 사이에 전투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 대결이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산헤립은 “아슈르 신을 신뢰하며”(III 1) 이집트-누비아 군대와 싸워야 했다. 전투 결과를 짙막하게 언급한 연대기 저자는 곧바로 엘테케와 팀나 점령을 언급하면서 이 교전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에크론에 관한 서술에서 눈에 띄는 것은 히스기야에 관한 언급이다. 산헤립은 에크론 사람들이 자기네 왕 파디를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크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넘겨졌고 에크론 주민들이 이집트 군대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에크론의 반란은 이집트의 충동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지지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3) 히스기야

연대기는 이 부분에서 히스기야를 언급할 때 ‘왕(LUGAL)’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유다인 히스기야(*ḥa-za-qi-a-ú^{kur} ia-ú-da-a-a*)”(II 76)로 지칭한다.¹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락에 히스기야의 이름이 두 번 더 나오는데 각각 “유다인 히스기야(*ḥa-za-qi-a-ú^{kur} ia-ú-da-a-a*)”(III 18)와 “그 사람 히스기야(*šu-úⁱ ḥa-za-qi-a-ú*)”(III 37)로 거명되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헤립에게 호의적이었던 에크론의 파디

18) Antti Laato, *윗글*, 219-220.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저항하다가 달아난 시돈의 왕 롤리나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이슈켈론의 왕 치드카야 역시 ‘왕’으로 불리고 있다. 물론 C 단락에서 산헤립에게 복종하며 조공을 바친 여러 왕들이 언급될 때에도 ‘왕’이란 칭호를 생략하고 있지만 이 목록 마지막에 “아무루 왕들(LUGAL, MEŠ^{kur} MAR, TU^{ki})”(II 58)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의 지위를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히스기야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연대기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¹⁹⁾ 같은 사건에 관해 기록한 다른 아시리아 자료에서는 히스기야를 심지어 “악명 높은 반역자 히스기야”라고 묘사하기도 한다.²⁰⁾ 여기서도 왕이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다. 연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에 대해 왕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연대기가 히스기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그 이전에 나오는 시돈, 이슈켈론, 에크론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와의 대결을 준비하는 배경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원정 당시 산헤립의 최대 관심사가 히스기야나 유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대기를 기록할 당시 산헤립의 관심은 히스기야와 유다에 있었다.

에크론에 관련된 단락(E)에서 산헤립은 에크론 왕 파디를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왕위에 복귀시켰다고 진술한다. 이런 일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즉, 산헤립이 예루살렘 봉쇄를 시작하기 전이나 봉쇄 중에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산헤립의 연대기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을 뿐 정확한 지리적,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²¹⁾ 그렇다면 산헤립이 에크론 왕 파디를 예루살렘에서 구출해낸 것은 히스기야와의 대결 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의 일이라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실제 사건의 순서와 달리 산헤립은 자신이 파디를 “예루살렘 한가운데서(*ul-tu qé-reb^{ur} ur-sa-li-im-mu*)”(III 15) 끌어냈다고 자랑하고 있다.²²⁾ 연대기는 실제 시간

19) Yoo-ki Kim, “In Search of the Narrator’s Voice: A Discourse Analysis of 2 Kings 18:13–1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 (2009), 486.

20) Walter Mayer, *유태*, 194 (Bull 1).

21) Francolino J. Gonçalves, *유태*, 114.

22) 이에 앞서 산헤립은 “전투가 한창일 때(*i-na MURUB: tam-ta-ri*)”(III 5) 이집트와 누비아의 고위위급 장교들을 생포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는 두 곳 모두 같은 표현(*qé-reb = MURUB*)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달성한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

적 순서와 다르게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마치 산헤립이 파디를 적진에서 구출한 듯한 인상을 준다.

5. 산헤립의 유다 공격 기록과 역사

1) 이집트

산헤립은 유다를 공격하기에 앞서 이집트-누비아 군대에 맞서 싸워야 했다. 비록 그가 이 군대에 패배를 안겨주었다고 자랑하고 있긴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의 공격을 단순히 “피했거나” 겨우 “물리친” 정도인 듯하다.²³⁾ 이집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다나 에크론 등 팔레스타인 남부 국가들이 아시리아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충동했을 것이다.²⁴⁾ 그러므로 실제로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을 때 이집트는 이 전쟁에 적지 않은 군대를 파병했을 것이다. 이집트의 개입이 단순히 에크론의 파병 요청에 대한 응답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에크론과 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연대기에서 이 사건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도 이집트-누비아 군대와와의 전투가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에서 그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산헤립의 자랑 이면에는 이집트-누비아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아시리아군이 군사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 전투를 통해 산헤립이 얻은 수확은 몇몇 고위급 장교를 포로로 잡은 것 외에는 없었을 것이다.

2) 강제 이주와 감금

산헤립은 유다의 46개 도시와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도시들을 점령한 후 200,150명의 포로들과 짐승들을 끌어갔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한 강제 이주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강제 이주가 일어난 셈이다.²⁵⁾ 운그라트(A. Ungrad)에 따르면 이 수는 아시리아에

23) P. Kyle McCarter, *윗글*, 179.

24) Gösta W. Ahlström, *윗글*, 696.

25) 구약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쳐 유다 주민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다. 예레미야의 기록에 따르면 그 중 첫 번째인 여호아긴 왕 때(주전 597년) 가장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는데 그 수는 3,023명(렘 52:28)이었다. 열왕기하의 기록은 그 수를 10,000명으로 기록한다(왕하 24:14).

적대적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다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랄만큼 큰 수다.²⁶⁾ 이 수를 사람과 짐승을 합한 수로 해석하기도 그러나, 이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²⁷⁾ 200,150을 2,150으로 읽으려는 운그나트의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²⁸⁾ 한편 오데드(Bustenay Oded)는 이 수를 순전히 허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유다의 전체 추정 인구를 나타낸다고 해석한다.²⁹⁾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산헤립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유다에 관해 철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예루살렘 정복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수를 자신의 연대기에 사용했다고 가정해야 한다. 어쨌든 이 수가 실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정확한 수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수는 분명 과장일 것이다.³⁰⁾

강제 이주에 관해 언급한 산헤립은 곧 이어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어 놓았다고 자랑한다.³¹⁾ 히스기야가 곤경에 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산헤립이 히스기야에 대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어 두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히스기야에게 겁을 주어 달아나게 할 수도 없었고 강제로 폐위시킬 수도 없었다. 성 안에서 저항하며 버티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새장 안의 새에 비유한 것은 히스기야를 묶어놓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26) A. Ungnad, "Die Zahl der von Sanherib deportierten Judäe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8 (1942/1943), 199-200.

27) Walter Mayer, *윗글*, 182.

28) A. Ungnad, *윗글*, 202.

29) Bustenay Oded, "History vis-à-vis Propaganda in the Assyrian Royal Inscriptions", *Vetus Testamentum* 48 (1998), 424-425.

30) Francolino J. Gonçalves, *윗글*, 115에 언급된 다른 주장들을 참고하라.

31) 이 표현은 이곳 외에 티글라트-필레세르의 연대기에 등장한다. 이에 관하여는, ARAB 1:277을 보라. 새장 안에 갇힌 새의 표상은 아마르나 서한집에 나오는 비블로스의 왕 리브-아디(Rib-Addi)의 편지에 여러 번 언급된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나는 비블로스에 있다”고 하면서 왜 자신의 말을 무시하나며 이집트 왕에게 하소연한다. William L. Moran,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143 (EA 74:45-50)을 보라. 아마르나 서한집에 나오는 다른 예로 Walter Mayer, *윗글*, 179, n. 36을 보라.

3) 예루살렘 봉쇄

산헤립의 연대기를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앞서 산헤립은 자신이 이슈켈론에 속한 작은 도시들을 “포위하고 점령한 후 약탈했다(*al-me KUR-ud á š-lu-la šal-la-su-un*)”(II 72)고 명시하고 있으며 엘테케와 팀나 역시 “포위하고 점령한 후 약탈했다(*al-me KUR-ud á š-lu-la šal-la-sún*)”(III 7)고 자랑한다. 아울러 유다의 46개 도시와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포위하고 점령했다(*al-me KUR-ud*)”(III 23)고도 한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진지(URU.HAL.SU.MEŠ)”를 구축함으로써 사람들이 성문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III 29-30). 비록 이집트-누비아 군대의 저항이 있었지만 아시리아 군대는 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쉽사리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은 산헤립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증진하고 실로암 터널을 통해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해 놓고 포위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서의 자료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산당을 폐지하는 등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의를 확립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 내리는 종교적 신념과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한 저항 앞에 산헤립의 예루살렘 공격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가이어(J. B. Geyer)는 열왕기하 18장 14-16절에 언급되지 않지만 산헤립의 기록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포위 공격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³²⁾ 그러나 가이어의 주장은 우루-할-추-메시(URU.HAL.SU.MEŠ)라는 표현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번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메이어(Walter Mayer)에 의하면,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포위 공격용 벽(siege-wall)을 가리키긴 그러나 여기서는 진지(陣地; fort)로 보는 편이 낫다.³³⁾ 이 견해를 따르면 산헤립의 표현은 포위 공격보다는 봉쇄 작전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는 표현이나 전형적인 포위 공격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메이어

32) John B. Geyer, “2 Kings XVIII 14-16 and the Annals of Sennacherib”, *Vetus Testamentum* 21 (1971), 604-606. 또한 A. K. Grayson, “Assyria: Sennacherib and Esarhaddon,” John Bordman et al.(eds.), *The Assyrian and Babylonian Empires and Other States of the Near East, from the Eighth to the Sixth Centuries, B.C.*, Volume 3, Part 2 of *Cambridge Ancient History*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10을 보라.

33) Walter Mayer, *위트* 180-181.

는 여기에 사용된 *esēru*(에세루/가두다)라는 동사가 일반적으로 포위 공격을 위해 사용되는 동사인 *lamū*(라무/둘러싸다)와는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다.³⁴⁾ 어쨌든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한 포위 공격을 묘사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연대기의 전반적인 문체와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특징이다. 연대기 저자는 히스기야를 가두어 놓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아쉬움을 숨기고 있다.

4) 조공과 공격 마무리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어 놓았다는 언급 다음에는 예루살렘 봉쇄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³⁵⁾ 그러나 연대기는 예루살렘 교전을 언급하는 대신 히스기야가 보낸 조공 목록을 길게 나열하고 있다(III 38-49). 연대기에 따르면 산헤립은 “내 뒤에(EGIR-ia)”(III 48) 히스기야가 조공을 보내 왔다고 한다. 메이어는 산헤립이 니네베로 먼저 돌아오면서 군대가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천천히 오게 했다고 이해하며 아시리아가 이 봉쇄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본다.³⁶⁾ 그러나 산헤립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 조공을 받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두려움을 준 후에 히스기야가 보낸 조공 목록이 뒤따르는데, 무슨 이유로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물러나게 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³⁷⁾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는지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다. 더욱이 조공 목록은 지나치게 길다. 이 목록이 실제 히스기야가 보낸 조공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평화 협상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봉쇄 작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산헤립 역시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의 다 수중에 넣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소모전을 치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군대에 점령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어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언급은 없다. 이는 연대기에 전

34) 윗글, 179.

35) A. K. Grayson, 윗글, 110.

36) Walter Mayer, 윗글, 181.

37) 라아트(Antti Laato, 윗글, 225-226)는 전염병이 발병하여 아시리아 군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까지 퍼졌고 이것이 산헤립이 퇴각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반적으로 흐르는 선전 문구들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니네베 궁전의 벽면 부조에도 유다의 주요 도시인 라키시를 점령한 장면은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묘사가 없다.³⁸⁾

히스기야는 시돈의 왕 물리처럼 달아나지도 않았고 이슈켈론의 왕 치드카야처럼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다. 산헤립은 유다의 지도자를 교체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나 교체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존재가 제국 서부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를 그냥 두면 에크론까지도 다시 반기를 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산헤립이 그를 고의로 그 자리에 남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파악한다면 유다 공격은 산헤립의 원정 끝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지리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점령한 후 맨 마지막에 공격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아시리아 군대는 분명 지쳐 있었다. 특히 이집트-누비아 군대와와의 전투를 통해 손실을 입은 것이 큰 부담이 되었다.³⁹⁾ 이런 상황에서 산헤립은 무리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6. 맺음말

많은 학자들은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에 관한 구약 성서 자료보다 아시리아 연대기의 기록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구약 성서는 종교적인 문서로 전승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아시리아 기록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발견된 당대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 성서의 경우와 정도나 범위의 차이가 있지만 산헤립 연대기 역시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전으로 이해할 때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38) 성서의 진술에 따르면 라키시는 산헤립이 포위 공격하여 점령한 도시로서 당시 예루살렘 공격을 위한 지휘 본부가 이곳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열왕기하 18장 14, 17절; 19장 8절; 역대하 32장 9절; 이사야 36장 2절을 보라.

39) 아시리아 군대가 이집트-누비아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은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이 전투는 연대기에서 팔레스타인 원정 중 일어난 것으로 묘사된 유일한 전투이다. 에번스(Paul S. Evans)에 따르면, 아시리아 군대는 전투 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이런 긴급 상황에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Paul S. Evans,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the Book of Kings* (VTSup 125; Leiden/Boston: Brill, 2009), 178.

이 글에서는 연대기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일부 표현들을 바탕으로 연대기의 성격을 밝히면서 팔레스타인 원정에서 산헤립의 공격 목표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구약 성서의 기록을 함께 고려해 봄으로써 실제 원정에서 아시리아와 유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았다. 이 글은 산헤립의 연대기와 구약 성서에 집중했지만, 앞으로 산헤립의 팔레스타인 원정 연대기를 아시리아 연대기 전체의 문학적 전통 안에서 살펴본다면 본문에 나오는 여러 독특한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참고문헌

- 임헌준,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 상(像)”, 『구약논단』 31집 (2009년 3월), 114-136.
-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군사 개혁”, 『구약논단』 35집 (2010년 3월), 224-239.
- Ahlström, Gösta W.,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1993).
- ANET =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ARAB = Luckenbill, Daniel David, *Ancient Records of Assyria and Babylonia* (2 vols.; Chicago, 1926-1927; repr.; Lon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1989).
- Borger, R., W. Hinz, and W. H. Ph. Römer, *Rechts- und Wirtschaftsurkunden: Historisch-chronologische Texte* (TUAT 1; Gutersloh: Gerd Mohn, 1984).
- Borger, Rykle, *Babylonisch-assyrische Lesestücke* (2 vols.; 3d ed.; AnOr 54; Rome: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2006).
- CAD =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1956-).
- Childs, Brevard S., *Isaiah and the Assyrian Crisis* (SBT 2/3; Naperville, IL: Allenson, 1967).

- Cogan, Mordechai, *The Raging Torrent: Historical Inscriptions from Assyria and Babylonia Relating to Ancient Israel* (Jerusalem: Carta, 2008).
- COS 2 = Hallo, William W.(ed.),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Volume 2 of *The Context of Scripture* (Leiden: Brill, 1997).
- Evans, Paul S.,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the Book of Kings* (VTSup 125; Leiden/Boston: Brill, 2009).
- Gallagher, William R., *Sennacherib's Campaign to Judah: New Studies* (SHCANE 18; Leiden: Brill, 1999).
- Geyer, John B., “2 Kings XVIII 14–16 and the Annals of Sennacherib”, *Vetus Testamentum* 21 (1971), 604–606.
- Gonçalves, Francolino J., *L'expédition de Sennachérib en Palestine dans la littérature hébraïque ancienne* (PIOL 34; Paris: Gabalda, 1986).
- Grabbe, Lester L.(ed.), *'Like a Bird in a Cage':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701 BCE* (JSOTSup 363;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 Grayson, A. K., “Assyria: Sennacherib and Esarhaddon,” John Bordman et al.(eds.), *The Assyrian and Babylonian Empires and Other States of the Near East, from the Eighth to the Sixth Centuries, B.C.*, Volume 3, Part 2 of *Cambridge Ancient History*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03–141.
- Kim, Yoo-ki, “In Search of the Narrator's Voice: A Discourse Analysis of 2 Kings 18:13–1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 (2008), 477–489.
- Laato, Antti, “Assyrian Propaganda and the Falsification of History in the Royal Inscriptions of Sennacherib”, *Vetus Testamentum* 45 (1995), 189–226.
- Mayer, Walter, “Sennacherib's Campaign of 701 BCE: The Assyrian View,” Lester L. Grabbe(ed.), *'Like a Bird in a Cage':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701 BCE* (JSOTSup 363;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168–200.
- McCarter, P. Kyle, Jr., “The Divided Monarchy: The Kingdoms of Judah and Israel,” Hershel Shanks(ed.), *Ancient Israel: From Abraham to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Rev. ed.; Washington, DC: Biblical

- Archaeology Society, 1999), 129–199.
- Moran, William L.,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Oded, Bustenay, “History vis-à-vis Propaganda in the Assyrian Royal Inscriptions”, *Vetus Testamentum* 48 (1998), 423–425.
- Provan, Iain W.,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ZAW 172;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8).
- Roux, Georges, *La Mésopotamie* (Points Histoire; Paris: Édition du Seuil, 1995).
- Ungnad, A., “Die Zahl der von Sanherib deportierten Judäe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8 (1942/1943), 199–202.
- Weippert, Manfred, *Historisches Textbuch zum Alten Testament* (GAT 1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검색어

연대기

아시리아

유다

산헤립

히스기야

Sennacherib's Campaign and Juda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nals

Yoo-Ki Kim,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Sennacherib's Palestinian campaign has extensively been studied by Old Testament scholars because it was recorded in the Bible as well as in Sennacherib's annals. Most works on the campaign have focused on the historical issues related to the biblical and annalistic accounts. This article, however, aims at examining the nature of Assyrian annalistic account and applying the findings to a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events that it describes.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some grammatical forms and expressions that reveal Assyrian way of thinking. It also looks into some historical statements regarding the invasion of Judah, and by comparison with biblical accounts elucidates what really happened during the campaign. Therefore, this article bridges the gap between literary and historical

approaches.

Beginning with the review of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ext, this article offers a translation of the original Akkadian text into Korean. Then it gives a summary of the text and covers some of its literary features, especially with regard to its propagandistic elements. Then it looks into some points in the texts which are important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events that took place around Judah.

This article shows that neither the annals nor the Old Testament accounts can be considered history in its modern sense. Rather, the analysis of the Assyrian record highlights the author's effort to conceal military setbacks as well as his theological assumptions and world-view. It also reveals that careful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Assyrian text along with other related texts could contribute to a better historical reconstruction of the events in question.

Keywords

Annals

Assyria

Judah

Sennacherib

Hezekiah

- 투고일: 2012년 3월 31일
-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4일